사라진 절터서 보는 천년 신라

국립경주박물관 특별 사진전

'천년 묵은 옛터에 풀은~새롭네'
특별전시관 6월 30일~10월 3일

사진가 한석홍, 안장헌, 오세윤의
경주지역 불교유적 사진 57점 전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오세윤 作, 경주 망덕사지(2019)

신라의 사찰을 사진으로 만나는 특별전이 열린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최선주)은 6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특별전시관에서 사진전 '천년 묵은 옛터에 풀은 여전히 새롭네' 를 개최한다.

올해 말 신라미술관 개편에 앞서 대중에게 신라 불교미술을 널리 알리고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이번 특별전은 오랫동안 문화재 사진을 찍어온 사진가 한석홍, 안장헌, 오세윤이 수십 년에 걸쳐 찍은 사진 가운데 경주 지역의 불교 유적을 담은 57점의 사진을 선보인다.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신라 시대의 유적과 유물을 통해 신라 불교미술의 가치와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조명하는 특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전의 제목은 오늘의 우리보다 훨씬 먼저 신라의 세월을 그리워했던 조선시대 문신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남긴 문장에서 비롯됐다. 서거정은 쇠락한 경주 분황사를 보며 "황룡사와 마주하여 서 있는 분황사 천년 묵은 옛터에 풀은 여전히 새롭네(芬皇寺對黃龍寺千載遺基草自新)"라고 했다. 서거정이 분황사 터를 바라보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신라 시대 사찰은 대부분 건물터만 남아 세월의 무상함을 전해주는데, 여전히 푸르른 자연과 함께 만들어내는 그 풍경은 아름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주춧돌만 남아 있는 옛 터의 사진은 단순히 오늘에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사진 속의 '남아 있는 것' 은 남아 있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지금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사라져간 옛날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전히 새로운 옛 터의 풀들과 더불어 햇살, 바람 그리고 구름과 함께 천년 묵은 옛터를 보여준다. 그렇게 순간의 셔터가 만들어낸 사진 속에는 '오늘' 과 사라진 '천년' 이 함께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문화재 사진' 은 단순히 문화재의 '있음' 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 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눈으로 바라본 시대적 '미학' 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했다.

△1부는 신라 왕경에 세워진 사찰의 사진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신라는 6세기부터 황룡사, 분황사와 같은 대규모 사찰이 왕경 중심부에 조성됐고, 676년 통일 이후에는 낭산 주변으로 사천왕사, 황복사, 동해안 쪽으로 감은사, 불국사 등이 조성됐다. "절들은 하늘의 별처럼 펼쳐져 있고, 탑들은 기러기 떼처럼 줄지어 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처럼 당시 신라 왕경에는 수많은 사찰들이 들어서 있었다. 지금은 사찰 건물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주춧돌, 탑 또는 당간지주가 남아 있는 옛 절터는 전시된 사진이 보여주듯이 날씨와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2부의 주제는 야외 불교박물관으로 불리는 '남산' 이다. 경주 남산에는 여러 계곡에 걸쳐 100여 구의 불상과 수십 기의 탑이 남아 있다. 전시된 사진은 천 년 전 신라 사람들이 자연 속에 구현한 불교적 이상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역시 사진은 오늘의 우리가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그리게 한다. 마애불과 석탑의 그림자 끝에 있었을 불사의 흔적을 오늘의 풍경과 함께 보여준다. 햇빛에 마애불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어둠속에서 서 있어야 했던 작가의 시간을 느껴보는 것도 또 하나의 감상법이다.

△3부는 신라의 불교 미술을 대표하는 석굴암 사진을 소개한다. 석굴암 건축과 조각의 탁월한 조형미가 흑백사진으로 한 층 웅장하고 무게 있게 다가온다.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묘사된 개별 조각은 각각 부처, 보살, 사천왕상, 승려를 직접 대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에 의하면 석굴암은 신라인이 남긴 아름답고 찬란한 문화이자 대작불사라고 할 수 있다. 비단 미학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대한 불사를 이룩할 수 있었던 신라인의 혼이 담겨 있는 것이다. 신라인의 신앙의 소산이며, 위정자와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인 것이다. 한 장의 사진은 남아 있는 유적의 흔적으로 볼 수 없는 천 년의 위대함을 전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다양한 신라의 문화유산을 보다 흥미롭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특별전이 경주시민과 경주를 찾는 모든 대중에게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층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국립경주박물관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증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박물관 내 입장은 시간당 5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시관 내 입장은 시간당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054)740-7614

BTN불교TV 여름개편 단행

'마음을 바꾸는 시간 ~ ' 등
'새로운 시대, 새로운~ '주제
신행활동 활성 프로그램 편성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는 7월 5일부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행문화' 라는 주제로 시청자들과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신규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기존 프로그램의 시간을 변경하는 여름개편을 단행한다. 특히 이번 개편은 불자 · 시청자들의 '기초 신행생활을 돕기 위해 365일 함께할 수 있는 염불독경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고, ASMR, 온택트 대중강연 등 트랜드에 맞춘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신규프로그램으로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들은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 (Go! Inside)' 와 '멈춤 그리고 쉼' , '생활 속 염불수행' 이다.

7월 7일 첫 방송되는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인사이드(Go! Inside)' 는 매주 수요일(오후 11시 15분) · 금요일(오후 8시 30분) · 토요일(오후 11시 15분)에 방송된다. 우리 마음속의 욕망과 감정의 문제를 가장 잘 헤아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우리가 놓인 상황, 내면의 갈등, 자연과 사회, 마음의 문제를 유기적으로 바라보는 비대면 온라인 강연 프로그램이다.

7월 5일 첫 방송되는 '멈춤 그리고 쉼' 은 매주 월 · 화 · 목 · 금 오후 11시 15분에 방송된다. 눈과 귀가 편안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오감만족 콘텐츠로, 자연과 불교의 유 · 무형 유산 등의 소재를 중심으로 해 아름다운 영상과 소리로 구성한 ASMR 프로그램이다.

그 밖의 프로그램으로는 '생활속 염불수행' , '붓다의 길, 입보리행론' , '혜능스님의 화쟁사상으로 보는 세상' , '전현수 박사가 풀어주는 초기불교' 등이 있다.

박재완 기자

아기 안은 현대적 수월관음도


어화둥둥아가야, 160×98.5센티, 비단에 석채, 2021.

조이락 '대자대비-어화둥둥~' 展
갤러리한옥 6월 30일~7월 9일
고려불화 재현 · 현대작품 20여점

전통 고려불화 재현작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려불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교려불화의 맥을 잇고 있는 조이락 작가는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서울 갤러리 한옥에서 개인전 '대자대비-어화둥둥 아가야' 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본 경신사(카카미진자)가 소장하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모본으로 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저출산과 아동학대 등의 아이 수난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관음보살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 '어화둥둥 아가야!' , 일본 잠수사(센쇼지) 소장의 양류관음도를 시원한 석청으로 표현한 '푸른 광배의 수월관음도' 와 처녀작인 2003년도 작품 지장보살도 등 고려불화 재현작품과 소품 등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조 작가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중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선사하고 싶은 마음에서 붓을 들었으며, 문득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과 만날 때, 마치 자신이 아기가 된 듯 한없이 어리광을 부리며 관음의 품에서 위로 받고 싶은 심정을 아기로 대신해 화폭에 담았다고 한다.

조이락 작가는 용인대학교 대학원에서 고려불화와 유물재현을 공부했으며 모사와 보존과학 부문 문화재수리 기능자이다. 조 작가는 서양화가로 활동하던 중 우연히 본 고려불화 '수월관음도' 에 매료돼 20여 년 동안 불화를 그리고 있다. 8번의 개인전과 30여 회의 초대전 및 유물모사 작업에 동참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청, 대구 부인사 등에서 조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오랜 시간의 연마로 석채와 금니의 사용뿐 아니라 표현하기 어렵다는 공간의 깊이감을 잘 나타내며, 부처님의 상호는 자애롭고 명상적이다. 재현작품은 마치 700년 전의 유물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수월관음도와 만오천불도, 아미타여래도 등이 있다. 수월관음도의 재현과 만오천불도는 2015년 미국 LA 프록시 플레이스갤러리 초대전, 2017년(뉴욕 플러싱 타운홀), 2019년(뉴욕 티벳하우스) 뉴욕 한국문화재재단에서의 초대전과 시연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고려불화 재현작과 드로잉으로 2020년 '숨은 꽃-님에게 가는 길' (아트로직 스페이스. 서울), 2021년 '꽃으로 핀 바라밀' (마하보디 선원. 경주)이라는 주제로 초대전을 가졌다. (02)3673-3426.

박재완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